

### 연료·비료 가격 급등에도 우크라이나 봄 파종 영향 제한적

(Surging fuel, fertiliser prices do not threaten Ukraine's spring crop sowing, official says)

이란 전쟁으로 연료 및 비료 가격이 급등했으나, 우크라이나의 곡물 및 기타 작물의 봄 파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제부 차관이 밝혔다. 우크라이나는 주요 유지작물 및 곡물 생산국으로 2025년 약 220억 달러의 수출 수익을 창출하였다. 다만 작물 생산성은 비료 투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###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옥수수 재배면적 감소·대두 확대 예상

(PREVIEW-US corn planting seen down, soy acres up as Iran war inflates costs, analysts say)

이란 전쟁으로 미국 농가의 파종 계획이 변화하면서 옥수수 재배면적은 감소하고, 콩 재배면적은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이는 비료 및 연료 가격 상승과 곡물 가격 약세로 수익성 전망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. 한편, 일부 농가들이 비료 투입 비용이 높은 옥수수와 밀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낮은 대두로 재배를 전환하면서 대두 재배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### 브라질 최대 커피 협동조합 Cooxupe, 올해 수취 물량 12% 증가 전망

(Brazilian cooperative Cooxupe expects to receive 12% more coffee bags this year)

브라질 최대 커피 협동조합 Cooxupe는 올해 조합원 및 제3자로부터 총 680만 포대(60kg 기준)의 커피를 수취할 것으로 전망되며, 이는 2025년 대비 약 12% 증가한 수준이다. 이번 증가세는 아라비카 커피 생산량 확대가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.

출처: Thomson Reuters